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한국불교 위상, 여성불자 ‘뚝심’이 한 몫했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김의정 회장은… 제23~24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조계사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다.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세계의 茶人’(2008) ‘서울시 전통예술인상’(2008) 등을 받았고 ‘옥관문화훈장’(2011)으로 추서돼 불자로서, 그리고 차인으로서 업적을 쌓았다. 사진=김민재 기자



2022년 6월,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식. 조계종을 대표하는 여성불자 모임의 탄생이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단의 크고 작은 불사에도 적극 동참한다. ‘천년을세우다’ 불사에도 1000만원을 쾌척하고 불사 원만성취를 기원했다.



창립 후 조계사 맞은 편에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했다. 개소식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2022년 6월, 비가 쏟아지는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전국여성불자 1080인 발기인 참여로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창립됐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여성불자 모임의 탄생이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창립과 함께 여성불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종단 대표 포교단체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여성불자들의 권익 향상과 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평생을 다도교육에 일력하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각종 불교단체의 수장을 오랜 기간 역임한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만장일치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그 기대는 더욱 커졌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전국 교구조직과 직능조직으로 구성됐다. 창립과 함께 교구단위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나로부터 우리로 회향하는 전국여성불자회’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 수행, 가정, 평등, 문화, 봉사, 전법’을 키워드로 2년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국여성불자회는 말그대로 ‘부지런히’ 일했다. 나 자신과 뭇생명을 쓰다듬는다는 의미의 ‘쓰담순례’를 연 4회 각 교구여성불자회 주관으로 진행했다. ‘푼다리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문화예술 체험을 실시하고 회원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신년하례 음악회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내 안의 음악풍경’을 주제로 한 신년하례의식과 명상음악회는 회원들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단위인 만큼 교구별, 소모임별 활동도 활발하다. 제23교구 관음사여성불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로 ‘우즈베키스탄에 전통한복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서울지역 회원들로 구성된 ‘메타프랜즈’는 베트남 국제연꽃마을 법당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고 전통매듭반 수업을 운영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불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의정 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불교에서 여성 불자가 갖는 의미와 비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불교 1700년사에서 여성불자 비중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불교가 융성할 때도, 탄압 당할 때도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모습을 ‘뚝심’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한국불교의 위치를 만든 것은 바로 이 ‘뚝심’ 덕분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 상승과 사회진출로 인한 양성평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가정에서 가족들만 돌보는 것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역간 또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안에서 부처님 씨앗을 찾아내고 또 그 씨앗을 키워 꽃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부처님 품 안의 안식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여성불자의 역할이겠지요.”

김의정 회장의 불자로서 뚝심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가족여행에서도 꼭 사찰에 들렸다. 지금도 김 회장의 집 거실에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찍은 어릴 적 사진이 남아 있을 정도다.

“조계사에서 매일 기도하신 어머니 덕분에 어린 저에게도 조계사 나들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조계사와의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계사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듯 다녀요.”

김의정 회장은 조계사 신도회장을 지냈고 이후 여성 최초로 전국 신도를 대표해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전국여성불자회장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라고 강조했다.

젊은 시절부터 절에만 가면 1080배를 거뜬히 해냈다는 김 회장은 “여든 중반이 된 지금, 삼배하기도 벅찬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김의정 회장은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이라는 생각으로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물질과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서 “물론, 그것도 옛날만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서 우리나라 대표 다인(茶人)인 김의정 회장은 “매일 아침 한잔의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도 수행”이라면서 차에 대한 자부심을 드려냈다. 우리 차 복원의 선구자인 어머니 뜻을 받들어 한국 차문화 발전의 견인차이며 종가(宗家)인 명원문화재단을 이끌어 온 지 수십년이다. 그간의 원력은 한결 같다. 바로 우리 전통다도 맥을 이어 나가고, 우리 차문화 발전에 힘 쓰는 것이다.

김의정 회장은 “차는 전문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우리 역사와 함께한 문화로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예절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차와 함께 다례라는 독특한 차문화를 지켜오고 있지요.”

김의정 회장은 “차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오는 한국 전통의 종합 생활 문화예절로 차문화를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며 “두 손으로 차를 올리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 나를 남을 배려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차가 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수년전부터 김의정 회장은 다도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회장은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 인성교육에 다례(茶禮)만한 것이 없다”면서 “우리의 전통다례를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알리고,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해야할 일”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의정 회장은 아름다운 회향을 꿈꾼다. 김 회장은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회향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면서 “전국여성불자회장 자리도 마지막으로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불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닿을 때까지 함께하려 한다”면서 “본래 업인 궁중다례를 이어가기 위해 후학을 양성하는 일도 마지막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김의정 회장은 창간 30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에게 희망의 덕담을 선사했다. 김 회장은 “2009년 중앙신도회장이었던 당시, 창간 15주년 축하 메시지를 건냈던 기억이 있다”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이제 서른살 청년 언론이 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노력해 온 임직원 모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자들에게 건강한 소식과 좋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정론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나의 참맘을 붓다, 사랑을 붓다, 행복을 붓다, 나눔을 붓다, 부처님 법을 붓다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회주 진성 스님 교무 보문 스님 교리 정유 스님
주지 정원 스님 사회 대련 스님 템플 정륜 스님
원주 연심 전법사 포교 추파 스님 복지 마정 스님
재무 연정 전법사 문화 정진 스님 기록 정운 스님

· 신도회장 | 윤금상 청리
· 부회장 | 박선자 보리행
· 총무 | 김경은 금강행
· 사)붓다 총괄이사 | 현진 스님
봉사단장 | 이재현 수암
관리 | 허영자 정아 전법사
홍보 | 손채림 정이 전법사
해외 | 노은지 정무 실장
국내 | 성명선 정야 전법사
총무 | 정해자 혜안행
해외 봉사단장 | 황동현 청야
· 탑밴드 음악 봉사단장 | 천순희 천수행
· 교정 봉사단장 | 박교상 청준
· 소년원 어머니회 | 김도운 청운
· 군부대 봉사단장 | 변상경 청진
· 붓다복지관 관리단장 | 김동우 청화
· 갑룡장학회 후원회장 | 동상진 도경

· 재)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 사) 한지문화법인 장엄
· 사) 착한벗들(다문화지원센터)
· 사) 진안군자원봉사센터
· 사) 진안군관광협의회
· 사) 전북녹색환경연합회
· 사) 전북자원봉사센터



주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 마이산탑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60 붓다복지센터
공유폰 010-4335-7807 전화 063-433-0012 팩스 050-4775-7807
홈페이지 http://www.maisantapsa.com 이메일 maitapsa@hanmail.net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무원장 진 성 종회의장 법 전
부 원 장 현 진 수석부의장 혜 신
총무·문화국장 법 진 부 의 장 청 명
재무·홍보국장 지 오 종회의원 혜 정, 진 수
교무·복지국장 법 성 법 원, 원 경
규정·사회국장 법 정 현 담, 혜 성
주 재 기 자 문 선 희 정 유, 혜 일
보 경, 도 흥
원 만, 혜 월

전북종도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영 산(작법보유자) 조교수 법 정 감 사 법 원, 원 경
부 회 장 도 홍(지화장엄보유자) 사무처장 법 진
교육원장 도 정 재 무 지 오

전북 영산작법보존 회원 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